

# “군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통합 없다”

### 민주안호영 의원, 시군통합 관련사과 표명...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현안 공유·국회 대응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7일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완주·진안·무주 3개 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을 점검하는 릴레이 예산정책협의회의 첫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완주군 핵심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자산지소 및 햇빛연금마을 조성 △신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이전 대응 등이 제시됐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으로는 △완주·진안~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하남고속도로 확장도 연계한 심례C 진출입로 개선 △국도 17호선 용진 원상운차로 개선 △국립사회복지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완주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 의원은 “앞으로 4년은 완주군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피지컬 AI와 수소산업, 햇빛연금마을을 조성, 신규 산단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7일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실 제공)

주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과 국회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직후 안 의원은 완주군청 기실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갈등과 부담을 안겨온 사안”이라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통합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면서 완주군민들의 갈등과 피로감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계 개편은 주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론 절차를 제대로 통한 추진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완주군민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기우게 됐다”며 “완주군민의 큰 사랑을 받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군민의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으며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이제는 통합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종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장관과 별도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완주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완주군을 시작으로 진안군과 무주군에서도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만호 기자

# 민선9기 시정 로드맵 최종 보고

###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 9일 활동 마무리

전주시 민선 9기 시정의 밑그림을 마련해 온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위원장 안국찬)가 한 달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한 최종 로드맵을 공개한다.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1시 전주시청 15층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마련한 시정 운영 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는 안국찬 위원장과 한동승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혁신, 경제·산업, 문화·예술, 돌봄·복지, 도시·환경 등 5개 분야와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기업친화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세계영화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재정 회복과 인구위기 대응 △피지컬 AI 특별도시 조성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 육성 △시민 돌봄 책임도시 구현 등 주요 공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

를 통해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9일 열리는 최종 보고회에서는 각 분야와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제안과 추진 전략을 조지훈 전주시장과 전주시 실·국장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해단식을 끝으로 인수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보고회 이후에도 최소 인원이 남아 각 분야와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종합한 백서 편집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성된 백서는 오는 20일 조지훈 시장에게 전달돼 향후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국찬 위원장은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시의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해 준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그리고 지원에 힘쓴 공직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 전주시, 하반기 승진인사 단행

### 국장급 등 총 107명

전주시는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승진 내정자는 모두 107명으로,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인사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인사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을 기본으로 하되 국별 인력 안배와 현 직급 근속기간, 업무 추진 능력, 시정 기여도 및 업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진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읍무연과 성 관련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등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직급별로는 5급에서 4급 승진자가 5명으로 가장 높은 직급 승진이 이뤄졌다. 이성순 도서관정책과장, 장재영 동물원장 이영숙 청년정책과장 조문성 농식품산업과장이 직급 승진했으며, 박은주 우이동장은 직위 승진으로 4급에 내정됐다.

6급에서 5급 승진자는 모두 22명이다. 행정직에서는 강덕순 녹지정원과, 이원순 농식품산업과, 김병숙 청년일자리과, 이정현 청소지원과, 김선향 도서관정책과, 정환관 국가유산관리과, 김준호 기획예산과, 최경국 총무과, 이병구 주력산업과, 최수경 수도행정과가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무직 장태철, 사회복지직 송주아, 주영희, 공업직 이현중, 간호직 김은선과 김혜경, 환경직 황인호, 시설직 배상열·장재훈·전병구·장희광, 지적직 김일민 등 다양한 직렬에서 승진이 이뤄졌다.

7급에서 6급 승진자는 총 25명이다. 행정직에서는 국예원, 서석주, 김의실, 서은, 김준성 송근혜, 김주희, 유성현, 임경환 이은재, 김보경, 전주영, 서귀옥 정미경 등 14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세무직 강현식, 전산직 김시현, 사회복지직 김새은·임다미·신형철·임선옥, 공업직 주재일 농업직 정완순 시설직 강종열·정문봉, 사무운영직 김창민이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8급에서 7급 승진자는 모두 26명이다. 행정직에서는 김지현 이새하, 노민애, 이수연, 박고은, 이효진, 실용직 장진아, 송지영, 정영철, 신영란, 정지윤, 이다음, 진은미, 이병원이 승진했으며, 세무직 최경도, 사회복지직 박유민·유리아·배유란, 사서직 이연주, 공업직 김준표, 시설직 김하늘·이재성·박종연·조정현, 건축직 황종승도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

9급에서 8급 승진자는 모두 29명이다. 행정직에서는 강영하 이도은, 고황주, 이은영, 기홍서, 정희진, 김유리, 조기린, 김의현, 최지은, 김태환, 하유나, 유성지, 형승현, 유소영이 승진했으며, 세무직 장재희, 사서직 이수진, 녹지직 강윤수, 환경직 김남현, 시설직(일반토목) 박해수·손영현·서운원·오정은, 시설직(건축) 김영민·유정화·김현지·차유민·심영은, 시설직(지적) 김은영도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다.

전주시는 이번 승진 인사가 단순한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성과와 책임, 조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렴성과 공직윤리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아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1만호 기자

# 돌봄 가치 향상... 도내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교육

### 돌봄 종사자 사기 진작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및 성장&쉼'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장기요양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장기요양요원 및 돌봄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요양 우수종사자와 사기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상을 비롯해 국악과 탭댄스 공연 등 힐링 문화공연, 장기요양기관 실무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직무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 직무교육, 건강관리, 인식개선, 취업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역량강화교육 13회(1,490명), 권익보호 및 심리상담 31회(1,00명), 건강관리 프로그램 2회(91명) 등을 운영하며 돌봄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및 성장&쉼' 행사에 이원택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고된 여건 속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존엄을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이 전북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은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정을 적극 추진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고, 누구나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건강관리,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1만호 기자

# 진보당 도당 4기 당직선거 돌입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희)이 제4기 당직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전권희 현 전북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도당 부위원장 후보에는 손진영 익산시의원과 최한별 전주시의원이 각각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전주시 지역위원장에는 강성희 전 국회의원과 최한별 전주시의원이 공동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다.

진보당 제4기 당직 선거는 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한 뒤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1만호 기자



오창숙 여결특위위원장, 김한수 윤리특위위원장

# 남원시의회 전반기

### 예결·윤리특위 구성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가 6일 제 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 10대 전반기를 이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오창숙 의원, 부위원장에 강병욱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오창숙 위원장은 “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철저한 분석과 감시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모든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쓰이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에 김한수 의원, 부위원장에 전인숙 의원을 선출했으며, 김한수 위원장은 “의회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온전히 신뢰 받는 의회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가고 싶은 도의회, 제13대 첫 청소년 모의의회

### 전주영중 학생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주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전주영중학교 학생 24명이 참여해 직접 의원 역할을 맡아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심의,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 등을 체험하며 지

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실제 본회의 운영 절차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고 찬반토론과 표결에 참여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김희수 의장은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청소년 모의의회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이라는 슬로건처럼 청소년들에게도 의회가 더욱 친숙하고 열린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